# 번제를 위한 자아분해의 달인

## (레1:1~17)

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번제를 위한 자아 분해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번제를 원활하게 생활화하려면 자아(自我)를 분해하는 달인(達人)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위한 자아 분해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영수 여사가 청와대 뒤뜰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 불상을 그대로 놔두고 묵인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분개했습니다. 장로님 신분으로 어떻게 청와대 뒤뜰의 불상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 상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 뒤뜰에 불상이 있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육영수 여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백만 보 양보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분의 종교심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이 들고, 또 설악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불상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다른 토속종교가 점령하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을 기독교가 잠식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그런 면에서 불상이 도처에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계시는 예배당 안의 강대상에 불상이 떡하니 들어와 있다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강대상 옆쪽으로 그 해의 표어라든지 특별한 행사를 알리는 플랫카드를 거는데 그 플랫카드에 삼신할머니라든지 산신령이라든지 사천왕상 같은 것이 교회 안에 걸려 있다면 마음에 토(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 피를 성전 벽에 발랐을 때의 유대인들의 느낌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예배당 안에 불상이 서있고 사천왕상이 서있다면 이 느낌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똑같이 토할 수밖에 없는 느낌을 받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당의 강대상에 사천왕상이나 불상이나 토속신앙의 삼신할머니 같은 그림들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내 자식을 들여놨다면 이게 예배당 안에 불상이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천사들이 볼 때 만찬가지이고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성소(至聖所),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셔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의 강대상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올라가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인데 그곳에 불상이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그보다 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자식이, 나라가,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불상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임마누엘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 중에서 선민을 선택하셨고 그렇기에 선민이라고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선민으로 모아 놓으셨는데 이 토악질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민들이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우리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뭘 성공하고 뭘 잘하고 무슨 부흥을 하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토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시면서 나와 함께 하 수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과제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번제" 얘기가 레위기 첫 장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에 관한 얘기이고 18-27장까지가 성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성결해지는 것이고 성결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산에 도착한 이후로 계약을 맺게 되면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전부 하나님과의 계약얘기고 성막을 지시하시고 건립하고 봉헌하는 얘기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첫 번째 제사에 관한 얘기로 번제가 나오는데 선민이 누구이고 신앙인이 누구냐는 것인데 번제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달인도 아니고 돈 벌기의 달인도 아니고 달리기의 달인 건강의 달인도 아니고 자식 키우는 달인도 아니고 아버지 노릇의 달인도 아니고 직장인의 달인도 아니고 선민은 번제의 달인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는데 이 번제를 세 가지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한다.'는 뜻으로 '휴식한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격정적으로 토해야 하는 상황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도 편안하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나를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토할 마음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정말 시인의 시구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smooth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smooth속에 박해도 있고 순교도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는데 smooth하게 넘어 가는 것입니다. 순교조차 smooth하게 넘어가는 삶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조차도 마음에는 평강이 유지되고 smooth하게 구름에 달 가듯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음사건으로 번제의 달인이란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번제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 될 달인의 단계가 있는데 자아 분해의 달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아가 분해될 수 없으면 내가 나를 분해할 수 없으면 번제의 의미가 없고 막연해지는 것이지요. 번제를 드려도 상당히 세밀하게 드려져서 번제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분해의 달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적인 자아가 그대로 다 통째로 희생제물의

소나 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옮겨진다는 것이지요. 나의 자아가 들어가 버린 그 희생제물을 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분해의 달인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먼저 죽여서 피를 뽑아서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은 온 몸을 부분, 부분 절단해서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분해를 하는데 피로 분해하고 가죽으로 분해하고 머리와 몸통부분으로 다 조각을 내고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내장 같은 것은 몸통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다 씻어서 올려놓고 다 불살라버리는데 가죽만은 태우지 않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를 흘려서 피를 밖으로 뽑아내는데 우리 인격의 구성을 떠올리면 돼요. 성막의 구성이 우리 마음의 구조로 지성소와 성소로 돼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들어와 있게 되고 원래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곳이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셔야 하는 그 장소에 내 아들딸이 들어오면 이건 참을 수 없는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무엇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왜 움직이고 있고 내가 왜 생각하고 있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쁘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불철주야하고 뛰어가고 있는가?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것이 생명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정의의 전인적 인격체라고 하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이 다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각하고 생명으로부터 감정을 느끼고 생명으로부터 의지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들여놓는 것인데 다른 것을 들여놓은 채로 생각하고 희로애락이 나타나고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면 어느 것 하나 죄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내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우리의 죄악 된 모습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 온 상태에서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와 몸통부분을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다 태우는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내 생각도 판단도 감정도 모든 희로애락 기뻐하는 중에도 죄를 범하고 슬퍼하는 중에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하나님 이외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고 있으니 내 인격전체의 생각, 판단, 감정, 의지 그 어느 것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토막을 내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인 것, 젊은 사람들 경우는 애인이 생명으로 모든 24시간 활동전체가 애인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엄마는 자식을 위하고 아빠는 사업을 대통령은 정치가 생명이 될 수 있는데 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이제까지 나의 인격전체를 죄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다른 생명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은 벗겨서 태우지 않아요. 그것 참 묘하지요. 다른 것은 다 태워요. 내장에 들어있는 오물만 버리고 물로 씻어서 다 태우는데 가죽은 벗겨서 남깁니다. 이 가죽이 뭘까요?
저로 보면 저는 저의 어머니의 아들이고, 제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친구들에게는 친구이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는 선생입니다. 이것이 신분이에요. 나의 인격전체가 죽는 것이 번제인데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빠라는 신분, 남편이라는 신분, 어느 분의 아들이라는 신분, 누구의 선생이라는 신분 이러한 사회적인 신분은 죽지 않는데 이게 바로 가죽을 벗겨서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가죽만 남았어요. 아버지라는 가죽, 남편이라는 가죽, 아들이라는 가죽, 회사의 직원이라는 가죽, 선생이라는 가죽, 제자라는 가죽...이런 신분의 가죽만 남았습니다. 이 신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가죽이 하나님이 끼시는 가죽장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마19:29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남편됨과 자식 됨과 아버지 됨을 버렸어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라면 자식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마음의 지성소에서 피를 빼내듯이 빼냅니다. 혹시 남편 중에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아내를 담을 수 있고 또 부모를 담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빼냈습니다. 다시 ‘백배로 얻는다.’는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서 피를 밖으로 빼내듯이 아내를 빼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아내를 집어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나의 모든 인격체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신분상의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껍데기 가죽을 하나님께서 가죽장갑으로 끼시고 아내를 상대하니 내가 상대할 때의 아내보다 하나님께서 내 가죽을 입으시고 끼시고 상대하시는 그 아내가 백배의 멋진 아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는 신분상의 껍데기인 가죽이 죽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자식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온 자식을 밖으로 빼내서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버렸더니 아버지라는 껍데기 가죽장갑을 하나님이 끼시고 자식을 기르시는데 내가 아버지로 자식과 관계할 때보다 백배 멋진 자식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건 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토가 재산이고 물질이고 돈 아닙니까? 이걸 마음속에 집어넣고 살았어요. 피를 흘리듯이 밖으로 빼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넣고 생각하던 모든 지정의 전인적 인격 활동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 인격이 어떻게 구성되었나를 깨닫고 분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정의 활동, 인격적 활동이 일

어나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인 생명이 자식이고,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데 돈 때문이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데 나의 노후 때문에 걱정한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분해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면서 분해달인의 경지에 달해야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음적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번제의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 안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밖으로 빼내는데 그러나 가죽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생각하던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해 내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 가죽은 나의 사회적 신분, 잘못된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했던 지정의 모든 인격적 활동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인격적 상태가 몸통이고 머리로 이 세 가지로 분해해서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니 이상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쉼을 주는 냄새, 휴식을 드리는 냄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로 드리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안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토하는 상태가 진정이 되는구나.'라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토하셔야 되겠습니까? 토하심이 진정되는 냄새가 번제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반드시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오고 내 건강이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하고 판단하면 곁길로 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하기 시작하시고 함께 하실 수가 없고 내 인생은 수고롭고 땀만 흘리고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는 힘들고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화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분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으니 이 잘못된 생명을 빼내야 하고, 이 잘못된 생명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내 인격전체가 불살라져야 되는데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갖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죽장갑으로 끼시고 그 신분이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실 것이고 내가 상대할 때보다 백배로 아름다운 관계로 결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번제가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번제의 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뜻하는 피, 사회적 신분을 뜻하는 가죽,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인격적 활동인 지정의 문제가 되는 머

리와 몸통 이 세부분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면서 분해해 낼 수 있는 분해의 달인들이 되셔서 꼭 번제의 달인이 되심으로 번제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하여 분해의 달인이 됨으로써 번제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심으로 내 생이 구름에 달 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